

창경궁·인사동·성북동...해설 들으며 걸어볼까

해설사 동행 무료 관광코스 인기...‘비жит서울’서 예약 접수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아이와 함께 하는 긴 시간 동안 어디를 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 큰 맘 먹고 멀리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준비와 비용, 시간 등으로 매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집 가깝고 교통 편한 도심에서 아이들에게 유익한 체험을 시키면서 어른도 함께 즐길 만한 가벼운 나들이를 생각한다면 서울도보해설관광이 좋은 선택지다.

서울관광재단(대표 길기연)이 운영하는 서울도보해설관광은 주요 관광 명소를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적인 해설을 들으며 탐방하는 무료 관광프로그램이다. 서울 관광정보 웹사이트 비жит서울에서 예약이 가능하다. 올해 평화문광장, 경복궁 돌담길과 청와대, 율곡로 궁궐담장길 등 새로운 코스 3곳을 개설해 현재 총 54개 코스다. 특히 최근 3년간 초등학생 이용자에게 인기가 높았던 6개 코스를 가족코스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마침 서울관광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이한 자녀와 함께 나들이하기 좋은 가족코스 3곳을 추천했다.

●임금의 지극한 효심, 창경궁 코스

서울에 여러 고궁들이 있지만 그중 경복궁, 창덕궁에 이은 세 번째 궁궐인 창경궁은 남다른 사연이 담겨 있는 명소이다. 창경궁에는 조선 22대 왕인 정조의 백성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담긴 공간들이 남아있다.

창경궁은 원래 조선 9대 왕인 성종의 효심으로 탄생한 궁궐이다. 당시 생존해 있던 정의왕후, 소혜왕후, 안순왕후 등 세 왕후를 모시기 위해 옛 수강궁 터에 세운 별궁이었다. 임진왜란 때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됐다가 광해군 때부터 재건을 했다. 다른 궁궐들에 비해 전각의 규모가 아담하고, 지형을 그대로 살려 언덕과 평지로 이루어진 공간 구성이 이채롭다.

창경궁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홍화문이 눈에 들어온다. 영조와 정조 시절 대민소통의 장소로 적극 사용했던 곳이다. 특히 이곳에서 정조는 수원화성행차를 전후해 빈민들에게 쌀을 하사하는 행사를 열었다. 자경전 터는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침전이다. 언덕이 있는 창경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어머니의 침전을 만든 정조의 효심을 엿볼 수 있다.

●독립운동의 흔적들, 인사동 코스

걷는 동안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의 역사 교육 코스다. 인사동은 한성부의 관인방과 대사동의 가운데 글자 ‘인(仁)과 ‘사(寺)’를 따서 붙여진 지명이다. 이곳에는 3·1운동 유적지인 태화관 터와 탑골공원, 승통교회, 천도교 중앙대교당, 조선건국중앙터, 독립선언문 배부터 등 많은 유적지를 만나볼 수 있다. 인근에 있는 보신각은 매년 12월 31일 자정 새해 타종이 이뤄지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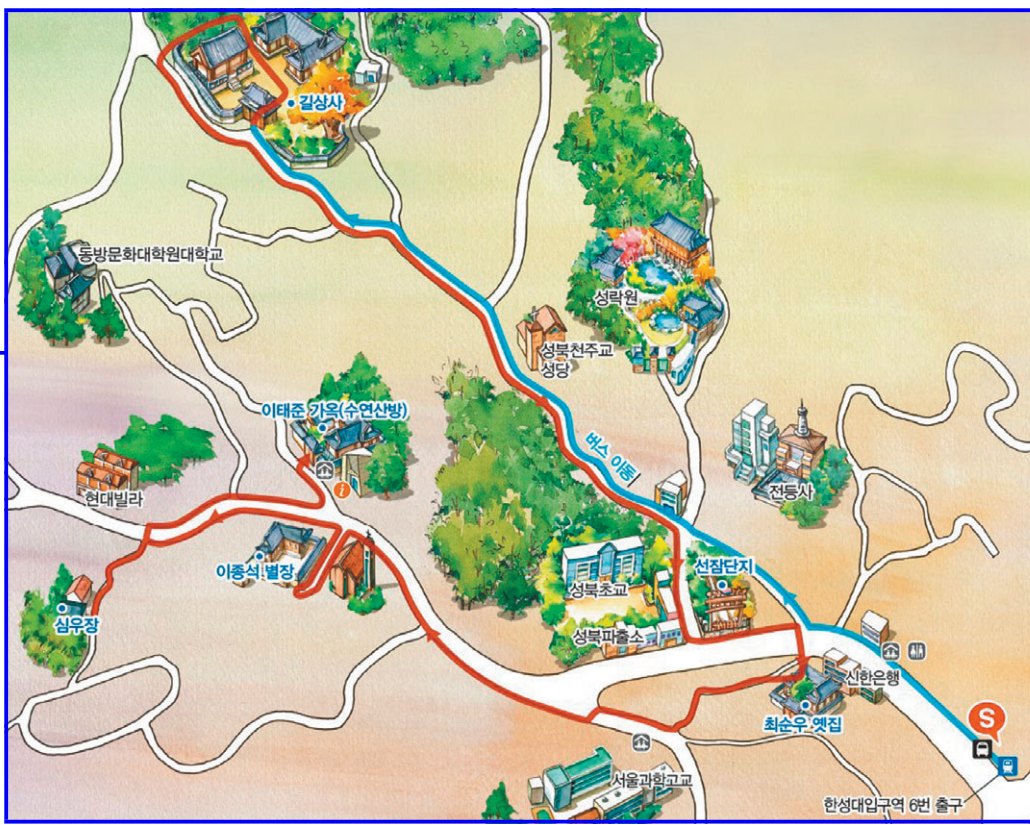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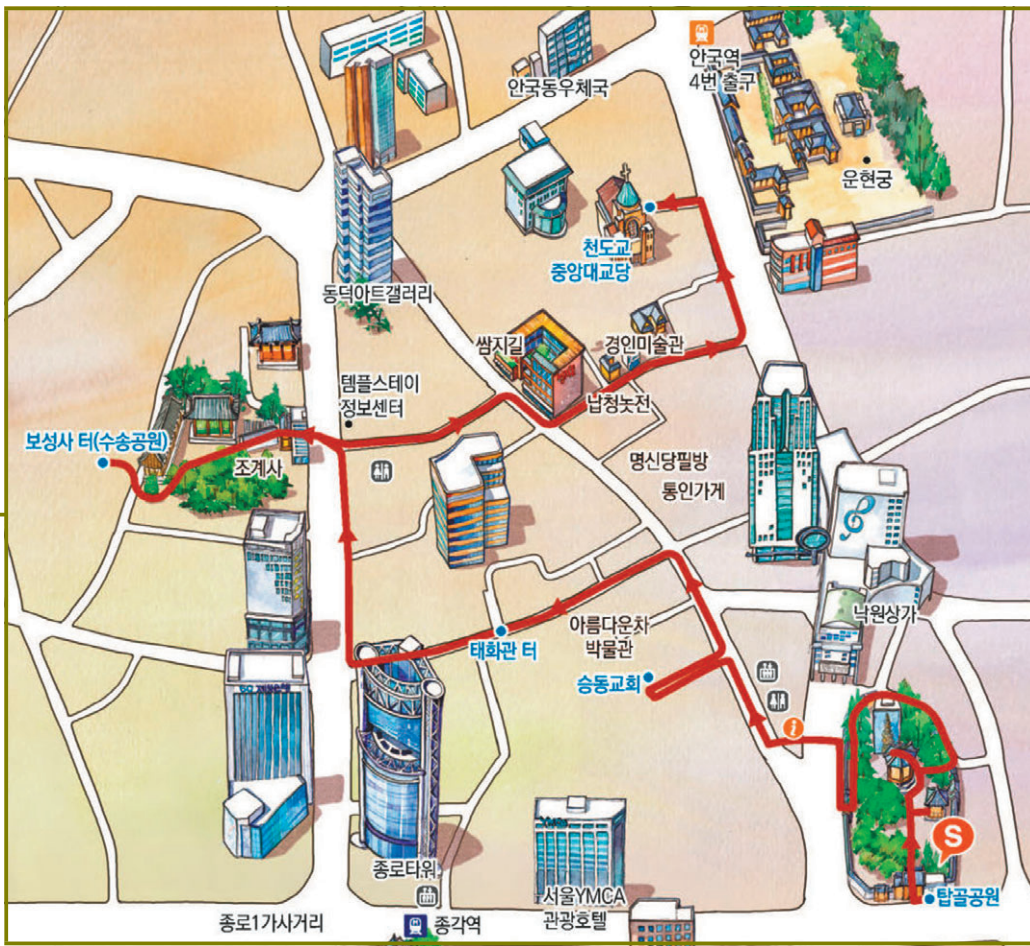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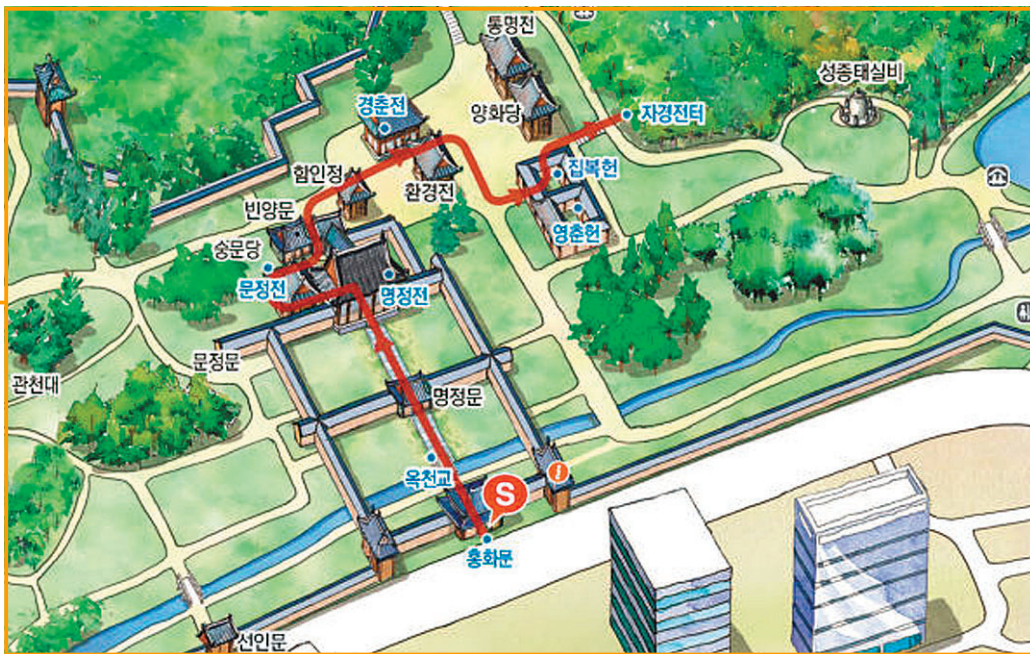
근대사 유적 외에 골목길 투어도 인사동 도보여행의 매력이다. 아기자기한 골목길 끝에 예쁜 카페나 찻집이 있고, 찻지길 등 젊은 감성의 시티투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도 있다.

●문화와 문화재, 성북동 코스

발 딛는 곳마다 문학, 문화재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가득하다. 이태준 소설가, 전형필 선생, 한용운 선생 등의 흔적이 남아 있다. 백석 시인을 향한 김상화 김영한의 70년 넘는 사랑이 담긴 김상화사를 비롯해 소설가 이태준의 고택이었던 수연산방 등이 이곳에 있다. 또한 우리 문화재를 지켜냈던 간송미술관의 창립자 전형필 선생의 간송 옛집, 만해 한용운 선생이 말년을 보낸 심우당 등 근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이들의 자취가 도보투어 곳곳에 있다.

근대사 인물은 아니지만 4대 국립박물관장이자 미술사학자였던 최순후 선생의 옛집도 1930년대 경기 지방 한옥의 형태를 보존한 곳으로 함께 돌아보면 좋다.

oldfield@donga.com



여행

스포츠동아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15

“여행 큰 손 MZ세대 잡아라” 하나투어, 2030 상품 강화

‘하나LIVE’ 힘입어 예약 비중 2년새 2배 ↑
동남아 인플루언서 동행 등 테마여행 확대

하나투어가 지난해 MZ세대 여행 매출이 급증한 것에 주목해 2023년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하나투어가 지난해 연명별 해외여행 예약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30대 예약 비중이 30%를 차지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16.3%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해외여행이 단거리 휴양지 중심으로 재개되면서 MZ세대의 보복여행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30대 해외여행 지역별 비중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가 37.4%로 가장 높았다.

개별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MZ세대의 예약 비중이 높아진 것은 하나투어의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도 한 몫 했다. 하나투어의 라이브커머스 채널인 ‘하나LIVE’는 MZ세대의 예약 채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하나LIVE 예약 중 20~30대는 47.7%를 차지했다. 가장 많았던 상품은 보라카이 4~6일(에어텔), 보홀 5~6일, 다낭/호이안 5일 순이었다.

각 분야 전문가가 동행하는 테마여행도 인기였다. 지난해 테마여행 예약자 중 20~30대는 40.1%였다. 6월에 진행된 여행자가 안시내 동행의 몽골여행은 단 1분 만에 완판됐는데 예약자 대부분 20~30대였다. 올해는 유럽과 일본 예술여행, 동남아 인플루언서 동행 여행 등 MZ세대 취향에 맞춘 테마여행을 더욱 확대한다.

이밖에도 고객이 여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하나팩 2.0’, 4명 이상 소규모 단독 패키지 ‘우리끼리’, 그리고 에어텔, 에어카텔, 카텔, 티켓텔 등의 결합상품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서울 부당요금 피해보상 ‘여행자지원센터’ 개관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여행자센터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관광협회가 운영하는 여행자지원센터는 2013년까지만 운영해 온 ‘관광불편처리센터’의 업무영역을 재정비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관이다. 관광 안내 서비스를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관광특구에서 겪는 부당요금에 대한 피해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전문 관광통역안내사가 상주한다. 지난해 말 여행자지원센터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spe@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월 27일(금) 음력: 1월 6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호랑이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문서에 따르는 변화에서 명예가 따르나 과욕을 부리면 도리어 구설이 뒤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예, 문서적인 측면에 신중을 기하여 결여된 부분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처음은 불안하겠지만 노력하면 이룬다.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맥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갈 기다려야 한다. 운이 막혔으니 큰 것은 바라지 말라.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는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무슨 일이나 엇갈리고 배반되어 잘 들어맞지가 않는다.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팔방이 꽉 막힌 상태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차츰 나아지는 운세이나 자포자기에 빠져 협력자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평화로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 안이한 생활에 젖어 물질적으로 파탄이 오거나 정신적으로 퇴폐적인 생활을 하게 될 때이다. 하지만 부패와 혼란의 시기는 동시에 혁신, 신생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때를 삼기일전의 기회로 삼으라.	의욕이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일이나 문제 등이 현실로 돌입되는 시기이니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자신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게 되며 독재하게 된다.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의욕이 너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강하게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도록 하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신변에 가까운 일은 성취된다.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거레에서 큰 건수가 들어온다.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있는 운기이다. 대망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뭇을 달고 배가 물위를 가는 기운으로서 밖을 향해 큰 기운을 발산하고 대사업을 이룩해 가는 시기이다. 이제까지의 불운을 만회하고 격정이나 번민에서 해방되는 때이다. 하지만 너무 태만하다보면 모처럼의 행운도 놓치게 된다.	자칫 인간관계에서의 트러블로 인해 곤고한 지경에 놓이게 되며 그로인한 심리적인 갈등과 마찰로 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한동안의 안정으로 다소 여유를 얻으며 생각지 않은 만남이 연출된다. 지출이 많을 때이다. 자제하라.						

오늘의 날씨			27일(금)		
서울	10/0	-9 -5	인천	10/0	-9 -6
강릉	0/0	-5 1	대전	30/20	-6 -3
광주	60/30	-3 -1	대구	60/0	-4 0
창원	10/0	-2 2	제주	60/60	3 4
충청	0/0	-11 -4	전주	60/30	-5 -2
부산	10/0	-1 3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999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